

#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강희숙\*\*

## 목 차

1. 머리말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코로나-19 신어에 반영된 코로나 뉴노멀
4. 맺음말

### 〈국문초록〉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에 엄청난 대변혁 또는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이 출현한 신어들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뉴노멀’ 관련 신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인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신어 목록을 참조하되, 이 목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실제 용례 확인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신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뉴노멀’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NRF-2019S1A6A3A01059888).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첫째,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둘째,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

셋째,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넷째,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뉴노멀’이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나타난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출현한 신어의 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러한 신어에 반영된 ‘코로나 뉴노멀’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신어, 코로나 뉴노멀, 빅카인즈, 언택트, 온택트, 거대 정부

## 1. 머리말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코로나-19는 세계를,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국경 폐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효되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재천 외 5인(2000)에서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여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름의 신인류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미래와 관련하여 비교적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 뉴노멀’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

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용어로 기술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변화 가운데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어생활의 변화이다. ‘비말감염’이나 ‘음압병상’, ‘코호트격리’, ‘선별진료소’ 등 의학 분야에서 일종의 전문어로 사용되던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사용하는 일상어의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sup>1)</sup>,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위드코로나(With Corona)’ 등과 함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비말차단마스크’ 등등 감염병 관련 신어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그 사용 범위를 점차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성과인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2019년 12월 이후<sup>2)</sup>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신어로 모두 302개의 용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보면, 코로나-19 신어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될 사회와 문화의 특징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새로이 출현한 신어에 초점을 맞추되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관련 신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인의 사회와 개인의 삶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이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기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가 바로 그것이다.

2) 조사 기간은 2019년 12월 코로나 19-가 출현한 이후부터 2020년 7월까지이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인류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상과 개념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대상이나 개념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휘들이 생기게 된다. 근래만 하더라도 디지털화와 인터넷 기술의 개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과학과 문화의 급진적인 변화가 새로운 개념을 꾸준히 양산해 왔다(정한데로 2019: 10).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대상과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바, 이를 지시하기 위한 용어를 일컬어 코로나19 신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신어’ 또는 ‘새말’이란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그러나 신어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비교적 좁은 의미에 속한다. 예컨대 남기심(1983:193)에서는 신어를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sup>3)</sup>을 통틀어 일컬으며,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신어의 유형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형태 차원의 신어 두 가지와 의미 차원의 신어 한 가지가 그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과 언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국립국어원의 신어 수집 방법 외에 주제 특정적 신문 말뭉치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말뭉치’<sup>5)</sup>를 활용하여

3) 김일환(2019: 60)에서도 “신어 탐지의 개념을 확장하면 기존의 형태 차원의 신어뿐 아니라 의미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의미 차원의 신어도 포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상어가 쓰인 문맥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러한 유형의 신어에 속한다.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136) 참조.

2019년 12월 이후 7월까지 1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이는 사전 미등재 단어 또는 구를 대상으로 모두 302개의 신어를 조사하였다.<sup>6)</sup>

문제는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수집된 신어 가운데는 조사 기간보다 훨씬 이전 시기에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어 또는 구(句)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그것이다.

- (1) 코호트격리, 긴급재난지원금, 착한가격업소, 집콕족, 차별금지법, 텍사메타손, 언택트, 언택트기술, 집관, 홈카페족, 요린이, 스테이블코인, 격리생활 시설, 원격수업시대, 침아일제 등.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하여 사용되었을까? (1)의 예들 가운데 몇몇 단어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ㄱ.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2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7000만 원을 주택침수 피해지역 70세대에 지원했으며, 모현면 시설채소 49 농가에 3000여 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28일 추가 지원키로 했다.(2010. 9. 24., 경남신문)
- ㄴ. 개인서비스업종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도 22개소에서 50개 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2012. 2. 7., 충청일보)
- ㄷ. 보건당국은 D병원에서 14번 감염자로 인해 의사 등 3명이 3차감염됐지만 응급실 등에 대한 **코호트격리**(병동 전체 격리 또는 환자를 같은 병실

5) 이 말뭉치는 네이버 inlink 77개 매체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음이 특징이다.

- 6) 그 유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관련 의학 용어
  - b. 제도 및 정책적 대응
  - c. 삶의 양식 및 일상에서의 영향
  - d. 경제적 파급 ‘코로나-19’

- 또는 병동으로 수용)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015. 6. 5., 세계일보)
- ㄷ.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族)**’이고 집에 있는 동안 소파에 기대 TV를 보거나 게임 삼매경에 빠져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016. 8. 1., 문화일보)

위 용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2010년부터, ‘착한가격업소’는 2012년부터 사용되었음이 특징이다. 또한 ‘동일집단격리’를 의미하는 ‘코호트격리’는 2015년부터, ‘집콕족’은 2016년부터 각각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코로나-19 신어가 과연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1)과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를 통해 코로나-19 신어의 윤곽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이고 보면 상당한 시간과 품이 드는 코로나-19 신어의 수집 작업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무의하기도 하고, 개인 연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는 역량 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수집된 신어 목록을 참조하되 (1)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이 등장한 신어들 가운데 ‘코로나-뉴노말’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신어의 유형 및 사용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7)</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빅카인즈 서비스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별 54개 언론사<sup>8)</sup>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 6천8백만 건 뉴스 콘텐츠를 빅데이터화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대상인 코로나-19

7)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신어의 조사 기간이 2019년 12월 코로나의 발생 이후 2020년 7월까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7월 이후에 형성된 신어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8) 여기에서 말하는 언론사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다.

관련 신어의 출현 시기와 빈도 및 사용 양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일환(2019: 60)에서는 기존의 신어 추출(extraction)은 신어 후보가 되는 단어를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신어 후보를 확보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면,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신어 연구에서는 기계적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신어 후보를 자동으로 탐지(detection)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조사 기간 동안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를 대상으로 하되, 이러한 신어들이 반영하는 ‘코로나 뉴노멀’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ㄱ.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 ㄴ.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
  - ㄷ. 거대 정부<sup>9)</sup>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 ㄹ.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 3.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뉴노멀’이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나타난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빅카인즈의 자료에서만 하더라도 지난 1년간 ‘코로나 뉴노멀’이란 신어의 빈도가 288건이나 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에 엄청난 대변혁 또는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빅카인즈 자료에서 추출한 신어를 통하여

9) ‘거대 정부’의 개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27일 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뉴노멀’의 구체적인 모습을 차례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 3.1.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3월 11일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그것이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이탈리아에서의 대규모 확산과 이동 금지 봉쇄령,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등 북미대륙에서 유럽 여러 나라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이 넘은 직후, 2020년 3월 24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 대책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접촉이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게 못하게 된 결과, 이른바 ‘언택트’ 혹은 ‘비대면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라는 용어는 사실 코로나-19 시대의 신어가 아니다. 다음에서 보듯, 원래 ‘언택트’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사람 간의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무인 기술’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 것이다.

(4) ㄱ. 무인기술이 사람 간의 접촉을 지워버린 ‘**언택트(Untact) 기술**’의 확산은 손님에게 말 걸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펴볼 수 있게 두는 침묵의 서비스를 낳고, 스페인어 ‘케렌시아’처럼 나만의 휴식공간을 추구하는 경향은 공간 비즈니스와 수면 산업 등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됐다.(2017. 10. 27., 서울경제)

ㄴ. 마음을 위로하는 ‘플라시보 소비’, 사람이 필요 없는 ‘**언택트 기술**, 소비를 통해 부를 과시하기보다 신념을 나타내는 ‘미닝아웃’, 발레 카펫과 하우스키핑에 이어 컨시어지 서비스 등 모든 선택에서 서비스가 훨씬

10)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천주희·신영은(2020: 35~51) 참조.



중요해지는 ‘만물의 서비스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2017. 10. 30., 중앙일보)

위의 용례에서 보듯 원래 ‘언택트’는 주로 ‘기술’과 함께 쓰여 무인 기술, 혹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는 단순한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쓰이거나,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신어 목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언택트/비대면 문화 관련 신어 목록

분야 \ 신어	목록	비고
사회	비접촉사회, 언택트사회, 언컨택트사회	
경제	언택트경제, 언택트이코노미, 언택트산업, 언택트마케팅, 언택트소비, 언택트영업부, 언택트존, 언택트주, 언택트채용, 언택트버프, 비대면채용, 비대면바우처 <sup>11)</sup>	언택트버프 ← untact buff
교육	언택트러닝, 비대면강의, 비대면시험	
문화	언택트트렌드, 언택트문화, 언택트시네마, 비대면영화관, 비대면주거문화, 언택트족	

위 목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언택트/비대면 문화’ 관련 신어는 분야 별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혹은 사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언택트사회, 언컨택트사회, 비접촉사회’ 등의 신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빅카인즈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출현한 순서대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그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 (5) ㄱ. **비접촉 사회(untact society)** 또는 비대면 사회란 단순히 모든 경제활동이 최소화되는 사회는 아니다.(2020. 3. 18., 국제신문)
- ㄴ. 코로나19 **언택트사회**(2020. 4. 10., 파이낸셜뉴스)
- ㄷ. 저자는 “**언컨택트**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며 “새로운 차별과 위협성을 내포한 언컨택트 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2020. 4. 23., 부산일보사)

위의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쓰이는 신어로 ‘언택트사회, 언컨택트사회, 비접촉사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ㄷ)의 용례를 보면, 이러한 사회 변화 혹은 전환은 예고된 미래였으며, 그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신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언어적 사실은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바로 경제 분야 신어라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는 ‘언택트버프’라는 신어가 쓰이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비대면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표 3>의 신어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하면, 언택트/비대면 문화 관련 신어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언택트’ 계열과 ‘비대면’ 계열이 그것이다. 두 가지 계열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언택트’ 계열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래어 계열 신어가 더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3.2. 언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초기의 대응으로 선택된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단절은 필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촉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빅카인즈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

택트 시대의 소통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소통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6) 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자, 언택트에 ‘연결’을 더한 ‘**온택트**’ 문화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 4. 21., 아시아경제)
- 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거리두기와 단절을 위한 ‘언택트’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온택트**’로 전환하는 셈이다.(2020. 4. 22., 세계일보)
- ㄷ. 이노선의 이수진 데이터커맨드팀장은 “**온택트** 시대에는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의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 4. 22, 세계일보)

이러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온택트’ 소통 방식이 확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택트’에 ‘연결’을 더한 것이라는 의미의 ‘온택트’는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 영역에서 일상 생활과 산업활동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랜선’과 ‘줌’ 문화의 형성이 그것이다. 우선 다음 용례를 보기로 하자.

- (7) 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랜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2020. 6. 24., 동아일보)
- ㄴ.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인해 ‘**랜선문화**’와 같은 비대면 문화 향유 방식이 확산되고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발전 등 문화 향유와 소비의 패턴, 문화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2020. 8. 3., 중부일보)
- (8) ㄱ. 지금은 일종의 ‘**줌 문화**’가 형성돼 줌을 이용해 생일파티를 열거나 공연을 열기도 한다.(2020. 4. 29., 아시아경제)
- ㄴ. **줌 시대**의 규범, 즉 ‘Zorns(Zoom+Norms)’도 필요하다.(2020. 6. 22. 매

## 일경제)

위 용례 가운데 (7)은 ‘랜선 문화’가, (8)은 ‘줌 문화’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랜(LAN)+ 선(線)’의 구조로 이루어진 ‘랜선’은 현실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sup>12)</sup> 그동안 ‘랜선라이프’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 오다가<sup>13)</sup>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줌’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원격근무 솔루션 업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만큼 온택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sup>14)</sup>

‘언택트/비대면’ 문화 관련 신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을 반영하는 ‘온택트’ 소통 방식 신어 또한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신어 목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온택트 관련 신어 목록

분야 \ 신어	목록	비고
사회	온택트시대, 랜선시대, 줌시대, 줌세대, 베이비주머스, 주머 <sup>15)</sup>	주머 ← zoomers
교육	온라인개학, 온라인강의, 온라인시험, 랜선강좌,	랜선야학: 방과 후

12) 『우리말샘』의 설명과 용례에 따르면, ‘랜선’은 다음과 같이 2015년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네티즌들이 악플과 키보드 배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랜선** 너머 따뜻한 공감을 나눌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 2015년 10월>>

13) 빅카인즈의 뉴스 텍스트에서 검색한 결과 ‘랜선라이프’는 2018년에 처음 등장하여 그해만 하더라도 무려 714회나 사용되었을 정도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였다.

14) 2020. 8. 26.에 이루어진 오데트 갈 줌 최고제품책임자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용량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하루에 전 세계 인구(약 78억 명)의 4%에 해당하는 3억 명이 줌에 접속했을 만큼 엄청난 특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2020. 8. 26. 동아일보 기사 참조)

	랜선육아반, 랜선야학, 화상교실, 화상지도교실, 원격교육선도학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경제	온택트경제, 온택트마케팅, 온택트소비재	
문화	온택트문화, 온택트공연, 온택트외교, 온택트피트니스, 온택트회의, 랜선문화, 랜선놀이, 랜선생과, 랜선축하, 랜선축제, 랜선술자리, 랜선호강스, 랜선해외여행, 랜선운동, 랜선여행족, 사이버술자리, 줌문화, 줌롤렛, 줌에티켓, 줌폭탄	줌롤렛: 회의 주최자가 무작위로 소규모 가상 회의를 조성하는 것.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택트’ 소통 방식 관련 신어는 사회, 교육과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되, 특히 ‘문화’ 관련 신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신어들은 구성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 (9) ㄱ. 사이버 + X: 사이버술자리
  - ㄴ. 온라인 + X: 온라인개학, 온라인강의, 온라인시험
  - ㄷ. 원격 + X: 원격교육선도학교
  - ㄹ. 화상 + X: 화상교실, 화상지도교실
- (10) ㄱ. 온택트 + X: 온택트문화, 온택트공연, 온택트외교, 온택트회의
  - ㄴ. 랜선 + X: 랜선시대, 랜선문화, 랜선강좌, 랜선야학, 랜선육아반, 랜선생과, 랜선축하, 랜선술자리, 랜선호강스, 랜선해외여행, 랜선운동, 랜선여행족
  - ㄷ. 줌 + X: 줌시대, 줌세대, 줌문화, 베이비주머스, 주머, 줌롤렛, 줌에티켓, 줌폭탄

위의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이후 하나의 사회 현상 혹은 문

15) ‘주머’((Zoomers)란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부머(Boomers)에 빗대어 사용하는 말로 ‘줌세대’의 이칭이다. 다음의 기사 참조.

미 언론들은 아예 줌을 애용하는 젊은 세대를 ‘Z세대’가 아닌 ‘줌 세대’, 혹은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부머(Boomers)에 빗대 주머(Zoomers)라고 이름 붙였다.(2020. 3. 25, 조선일보)

화 코드로 자리 잡게 된 온택트 소통 방식 관련 신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어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선행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의 예들 가운데 (9)의 구성 요소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인 반면, (10)은 ‘랜선’이나 ‘줌’처럼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 사용되었거나,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형성된 신어 ‘온택트’를 구성 요소로 한 것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표 4>의 예들 가운데 ‘랜선’을 구성 요소로 하는 신어들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즉, ‘랜선’을 활용한 생활방식, 곧 ‘랜선라이프’가 2018년부터 보편화되면서 그동안 ‘랜선집들이, 랜선모임, 랜선친구, 랜선연애, 랜선여행’ 등의 용어가 꾸준히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그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새로 등장한 ‘랜선강좌, 랜선운동, 랜선해외여행’의 용례이다.

- (11) ㄱ. 윤범모 관장의 **랜선 강좌**, 국립현대미술관 애장품 12점 이야기(2021. 4. 9., 중앙일보)
- ㄴ. 또한 언택트, 온택트, 집콕족, 홈트, **랜선운동**, 웨비나 등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도 수없이 많다.(2020. 12. 16., 대전일보)
- ㄷ. 아쉬운 마음 조금이라도 달래시라고 9일간의 **랜선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2020. 9. 26., 중앙일보)

### 3.3.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거대한 위기는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 낸다.”<sup>17)</sup>라는 유럽외교협회 베셀라 체르네바 부회장의 선언은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또 다른 유형의 코로나 뉴노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거대 정부’의 진

16) 『우리말샘』에서만 하더라도 ‘랜선’ 관련 단어가 무려 14개나 등재되어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가 그것이다. 방역 관련 제도나 법률이 제정되거나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음은 거대 정부에 의한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를 보여 주는 신어의 사례이다.

- (12) ㄱ. 이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까지 포함하면 244건"이라며 "여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3법**'인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도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2020. 2. 13., 머니투데이)
- ㄴ. 서울시가 혼잡 지하철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를 시작한 이날까지도 덴탈 마스크는 자판기 상품으로 올라가지 않았다.(2020. 5. 13., 머니투데이)
- ㄷ. 교육부의 경우 한국형 원격교육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원격교육기본법**'을 만들어 9~10월쯤 정부입법에 나설 예정이다.((2020. 6. 24, 경향신문)
- (13) ㄱ. 이재웅 쏘카 대표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2020. 2. 29., 아시아경제)
- ㄴ.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류나 키보드·자전거 구매 등에도 **이동돌봄쿠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020. 4. 22. 머니투데이)
- ㄷ. 이번에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작년 대비 올해 가게 매출이 줄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2020. 12. 29., 한국경제)

코로나-19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한편,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국가와 정부의 역할 및 권한이 증대되면서 (12)의 '코로나 3법'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제', '원격교육기본법' 같은 법을 또는 제도의 도입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또한 (13)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의 경제 지원책으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아동 돌봄쿠폰’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최근 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기도 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 주는 신어 목록이다.

〈표 5〉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관련 신어 목록

분야	신어	목록	비고
제도		① 코로나 3법, 취합검사법, 원격교육기본법,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 집합중지명령, 공공장소이동제한령, 국가봉쇄령, 전국봉쇄령, ② 마스크5부제, 마스크의무제, 마스크착용의무제, 재난긴급소득지원제도 ③ 생활방역체계, 생활방역체제, 비상공공의료체계, 재난지도시스템, 공격공급시스템	
경제적 지원		① 재난긴급생활비, 재난생활비, 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난수당, 재난구조수당, 재난생계수당, 재난극복수당,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소득, 재난지원소득, 재난소득기금, 재난생활안정자금, 재난사회보험기금 ② 긴급재난소득, 긴급재난지원소득,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민생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재난금, 긴급생계지원자금, 긴급생존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긴급재난생계비, 긴급재난수당, 긴급생계수당, 긴급청년수당, 긴급생활비, 긴급돌봄제도 ③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 국민재난기금, 기업구조긴급자금, 사업유지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코로나채권, 기본재난소득, 기본재난지원금, 비상생계비, 비상생계자금, 아이돌봄쿠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청년긴급수당, 서울시재난생활비	

〈표 5〉의 신어 목록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 거대 정부의 성격을 띤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매우 다양한 법률과 제도의 도입 및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 3법’<sup>18)</sup>을 위시한 각종 법령(①), ‘마스크 5부제’ 등의 제도(②), ‘생활방역체



계'를 비롯한 시스템의 도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난'을 선행 요소로 하는 명칭의 다양한 지원(①)에서부터 '긴급'을 선행 요소로 하는 것(②), '기타'에 해당하는 것(③) 등등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경제 지원책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sup>19)</sup>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나 경제적 지원은 '코로나 팬데믹', 곧 전 세계적 차원의 감염병 재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수준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코로나 뉴노멀'의 또 다른 양상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4.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의 시행은 개인의 일상 또한 180도로 바꿔 놓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바로 '집콕' 또는 '방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 전체가 집안에 머무르게 되는 일상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편, 불가능해진 생활방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방식이 또 하나의 '코로나 뉴노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신어의 사례이다.

- (14) 7. 웬만하면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 집에서 즐길 거리를 찾으려는 '**집콕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 시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020. 3. 12, 부산일보사).

18) '코로나 3법'이란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 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이 3개의 법안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19) 전문 분야에 따른 코로나-19 신어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149)에 따르면, '복지' 관련 신어가 57개(4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의 '경제적 지원' 관련 신어의 다양성은 바로 '복지'의 증진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한샘이 **집콕문화**에 부응, 침실을 호텔처럼 꾸밀 수 있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새로 내놓았다.(2020. 9. 16. 헤럴드경제)
- (15) 가. 지난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실시간 **산스장**(산에 있는 헬스장)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2020. 8. 31., 동아일보)
- 나. 바로 산 중턱이나 인근 공원 등에 자리한 이른바 ‘산스장(산+헬스장)’ 혹은 ‘**공스장**(공원+헬스장)’이다.(2020. 9. 4., 한국일보)
- 다. ‘**빵공죽**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 ‘카공죽’에서 파생된 단어다.(2020. 9. 6., 세계일보)
- 르. 재택 말고, ‘**제텔근무**’하세요 (9. 11., 매일경제).

위의 예들 가운데 (13)은 ‘집콕문화’를, (14)는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능해진 생활방식에 대한 대안적 생활방식을 보여 주는 신어의 사례이다. 이러한 문화 혹은 생활방식을 보여 주는 신어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영역 \ 신어	목록	비고
집콕문화	① 집콕시대, 집콕문화, 집콕챗런지, 스테이앳홈챗런지, 투게더앳홈 ② 재택경제, 집콕콘텐츠 ③ 코로나집밥, 집콕요리, 돌밥돌밥, 돌밥모드, 달고나커피 ④ 어페웨어	
대안적 생활방식	신중효도죽, <sup>20)</sup> 산스장, 공스장, 빵공죽, 제텔근무	산 +(헬)스장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뉴노멀’ 가운데 하나로 ‘집콕 문화’와 ‘대안적 생활방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신어 또

20)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 대리 쇼핑’에 나선 이들을 가리키는 말. 서울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50대, 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간 자녀들까지 대리 쇼핑을 하고 있어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등장하였다.(2020. 2. 28, 한국경제)

한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집콕 문화’를 반영하는 신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16) ㄱ. 시대: 집콕문화, 집콕챗린지, 스테이앳홈챗린지, 투게더앳홈
- ㄴ. 경제: 재택경제, 집콕콘텐츠
- ㄷ. 식생활: 코로나집밥, 집콕요리, 돌밥돌밥, 돌밥모드, 달고나커피
- ㄹ. 의생활: 어퍼웨어(upper wear)

한편, 집콕문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신어들도 몇 가지 존재한다. ‘확진자, 작아격리, 살천지’ 등 오랜 집콕생활로 몸무게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을 희화하거나, ‘코로나이혼, 코로나디보스’ 등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부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들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확진자, 작아격리’ 처럼 발음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거나 ‘살천지’처럼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었던 ‘신천지’ 교회를 근거로 하는 유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언어유희에 속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감염 공포에 움츠러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유머와 재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웃음으로써 눈물을 닦으려는 해학적 미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ㄱ. 살이 쯤다. 확진자가 아니라 **확찐자**.(3. 4., 경향신문)
- ㄴ. ‘확찐자는 옷이 **작아격리** 중’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확산되고 있다. (4. 11., 강원도민일보)
- ㄷ. 온 몸이 살 천지가 되었다는 뜻의 ‘**살천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빗대 단기간에 체중이 불어난 사람을 일컫는 ‘확찐자’, 침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는 ‘침아일체’ 등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례가 자주 올라오고 있다.(3. 18., 매일신문)

#### 4. 맺음말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역사적으로 출현하였던 다른 팬데믹 현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또한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계를,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에 속하는 코로나-19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에 엄청난 대변혁 또는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전제하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이 출현한 신어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뉴노멀’ 관련 신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인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신어 목록을 참조하되 문제점을 보충하거나 실제 용례의 확인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의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말뭉치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신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뉴노멀’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첫째,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 둘째,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
- 셋째,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 넷째,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뉴노멀’이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나타

난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출현한 신어의 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신어에 반영된 ‘코로나 뉴노멀’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기반이 된 데이터가 빅카인즈의 뉴스 텍스트라는 점에서 국어 사용자들이 사회연결망(SNS) 등에서 활발하게, 또는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어까지를 포괄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일환(2019), 「빅데이터 시대의 신어」, 『새국어생활』 29-3호, 국립국어원, pp.55~67.
- 남기심(1983), 「새말[新語]의 생성과 사멸」, 이기문 외,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pp.192~228.
- 남길임·이수진·최준(2017),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제29호, 한국사전학회, pp.72~106.
- 남길임(2019), 「신어의 빈도와 사용 추이」, 『새국어생활』 29-3호, 국립국어원, pp.25~38.
-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pp.136~171.
- 이유원(2019), 「사전과 신어-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29-3호, 국립국어원, pp.39~54.
- 정한테로(2019),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새국어생활』 29-3호, 국립국어원, pp.9~24.
- 천주희·신영은(2020), 「코로나19 타임라인」, 『문화과학』 103, 문화과학사, pp.35~51.
- 최재천 외 5인(2000),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Renouf, A(2013), A finer definition of neology in English: The life-cycle of a word, In Hasselgård et al. (Eds.), Corpus Perspectives on Patterns of Lexis(pp. 176-207),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Corona-19 Neologisms and Corona New Normal

Kang, Hui-suk\*

Like other pandemics that have historically emerged, such as the Black Death and the Spanish Flu, Corona-19 has shaken the world and the lives of mankind for just over a year. Corona-19 is still in progress, causing drastic changes in almost every area, including science, technology, social culture, art, and education, as well as politics and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rested in analyzing the life and social changes of individuals under the influence of Corona-19 focusing only on the newly emerging neologisms after the outbreak of Corona-19 on the premise that Corona-19 brought about a tremendous revolution in human life.

The collection of data for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utilized BIGKinds' news analysis service provid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In other words, after the outbreak of 'Corona-19' in a large corpus provided by BIGKinds, it is analyzed in four major ways that 'Corona New Normal' can be found in these new words.

First, the spread of untact/non-face-to-face culture

Second, the expansion of on-tact communic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and economic support following the advancement of the large government.

Fourth, the spread of Jipkok culture and alternative lifestyle

'Corona New Normal' means a new change in the social environment, a new routine and norm or standard that emerged from the spread of

---

\* Chosun University

Corona-19.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analyzes the types of neologism that have emerged since Corona-19, but also embodies the appearance of 'Corona New Normal' reflected in such neologisms.

Key Words: corona-19, pandemics, neologism, corona new normal, BigKinds, Untact, On-Tact, Giant Government

<필자소개>

이름: 강희숙

소속: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skang@chosun.ac.kr

논문투고일: 2021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